2부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

죄 죽이기 6편 참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달라 ·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

2부 6장(82~92쪽)

> ❓ **그러면 죄를 '죽인다'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거야? 참고 버티는 거랑 뭐가 달라?**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에서 죄 죽이기가 아닌 것을 걸러낸 뒤, 이 장에서 죄 죽이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죄 죽이기는 겉으로 터진 죄를 막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늘 특정한 죄로 끌어당기는 뿌리 깊은 성향을 습관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고 부른다. 둘째, 죄 죽이기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내 안의 원수를 원수로 알아보고, 그 수법을 연구하고, 잠잠할 때에도 날마다 친다. 셋째, 죄 죽이기는 성공이다. 죄를 잠깐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즉시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세워 끝까지 이기는 일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오웬은 이 모두를 두 가지로 묶는다. 성령이 심으신 은혜를 키우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모든 수단으로 즉시 죄에 맞서는 것이다. 이 길 끝에는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른 양심의 평안이 있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 시리즈 핵심 구절)

📜 1. 죄의 성향 — 마음을 늘 한쪽으로 끄는 습관 (6장)

오웬이 말하는 죄 죽이기의 첫째 의미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죄악된 욕망은 마음을 계속 악으로 기울게 하는 타락한 습성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욕망을 섬기고, 그 욕망들은 저마다 채워 달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모두 '자기 만족'이라는 한 방향을 향한다. 신자 안의 욕망은 늘 시끄럽지는 않지만, 그 실체는 의지와 감정을 특정한 죄로 끌고 가는 강한 경향이다. 선한 본성의 끌림은 부드럽게 이끄는 데 비해, 죄의 성향은 영혼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이 영혼과 '싸우고' 영혼을 '사로잡는다'고 말한다.

1. 죄 죽이기 1번: 죄의 성향을 약하게 하기
2. 욕망은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 끌림'
3. 여러 욕망도 결국 자기 만족을 향한다
4. 죄의 끌림은 부드럽지 않고 폭력적이다
5. 약화시키지 않으면 죄가 계속 잉태된다

> **창세기 6:5**
> 죄가 다스리는 마음은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로마서 13:14**
> 마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운다
>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베드로전서 2:11**
>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죄의 끌림은 폭력적이다
>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가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다

야고보서 1:14-15 ★

끌림을 내버려 두면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는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2. 주의 하나: 같은 욕망도 사람마다 힘이 다르다 (6장)

오웬은 정의에 주의사항을 붙인다. 모든 욕망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지만 그 세기는 똑같지 않다. 자주 따라간 욕망일수록 내 안의 다른 욕망보다, 또 다른 사람 안의 같은 욕망보다 강해진다. 타고난 기질과 삶의 환경과 기회가 그 욕망과 잘 맞을 수 있고, 사탄이 그것을 붙잡아 키울 수도 있다. 특히 자기와 맞는 유혹을 만나면 욕망은 전에 없던 힘을 얻는다. 이렇게 강해진 욕망은 뜨거운 증기처럼 지성을 가린다. 그러면 아는 것은 그대로인데도 그 지식이 의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1. 욕망의 세기는 사람·때마다 다르다
2. 자주 따라간 욕망일수록 강해진다
3. 기질·환경·기회·사탄이 그것을 키운다
4. 맞춤형 유혹이 욕망에 새 힘을 준다
5. 강한 욕망은 '아는 것'을 무력하게 한다

로마서 7:23 ★(로마서 7:18-25)

강해진 욕망이 지성과 의지를 사로잡는 과정의 배경(오웬은 이 과정을 다른 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말함)

📜 3. 주의 둘: 시끄러운 죄와 조용한 죄 (6장)

두 번째 주의사항이다. 어떤 욕망은 격렬해서 쉽게 드러나고, 어떤 욕망은 조용하다. 바울은 음행을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구별했는데, 그래서 음행의 움직임은 잘 보인다. 반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음행 못지않게 사람을 지배하면서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한 죄에 지배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도 남의 눈에도 이미 죄를 죽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지 않을 뿐이다. 오웬은 차분한 기질의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본다고 말한다.

1. 음행 같은 죄는 소란스러워 잘 보인다
2. 세상 사랑 같은 죄는 조용히 지배한다
3. 조용하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4. 차분한 기질을 거룩함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고린도전서 6:18**
>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서 그 움직임이 특히 잘 드러난다
>
>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 **요한일서 2:16**
> 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 조용한 세상 사랑도 같은 지배력을 가진다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 4. 십자가에 못 박듯 — 뿌리를 말려라 (6장)

성경은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부른다. 육체에 힘을 대주는 피와 원기를 빼내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처음에는 온 힘으로 소리치며 버둥거린다. 그러나 피가 빠질수록 움직임과 소리가 잦아든다. 욕망도 묶어두면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죽어 가는 욕망의 마지막 비명은 대단한 힘처럼 들리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곧 끝난다. 이 원리는 음란이나 세상 욕심만이

나쁜 나무 비유로 마무리한다. 뿌리가 살아 있는 한 쓴 열매를 아무리 따 내도 다시 열린다.

1. 죄의 피와 원기를 빼는 일이다
2. 죽어 가는 욕망은 마지막에 더 크게 운다
3. 요구를 거절하면 발악은 곧 끝난다
4. '육체'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도 포함
5. 열매만 따면 제자리, 뿌리를 쳐야 한다

> **갈라디아서 5:24** ★
>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 성향 약화의 성경적 이름(이 편의 중심 구절)

> **로마서 6:6** ★
> 옛 사람이 못 박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 **고린도후서 4:16**
> 날마다 낡아지는 점진적 과정
>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요한일서 2:16**
>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약화 대상에 포함된다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 5. 싸움 ① — 원수를 원수로 알아보기 (6장)

죄 죽이기의 둘째 의미는 '죄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죄가 왕성할 때 영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윗처럼 신음할 뿐 죄를 몰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쯤으로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오웬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원수를 품에 안고 다니면서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책망을 참지 못한다.

1. 죄 죽이기 2번: 끊임없는 싸움
2. 먼저 '내 안에 원수가 있다'를 인정하라
3. 이 싸움에는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
4.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위험 신호다
5. 책망을 못 견디면 원수를 품은 것이다

> **시편 40:12**
> 죄가 덮치면 머리도 들 수 없다. 왕성한 죄 앞의 무력함
>
>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 **열왕기상 8:38**
>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아는 것이 싸움의 출발점이다
>
>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 **역대하 16:10**
> 스스로 의롭다 여긴 아사 왕은 책망에 분노했다
>
>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 6. 싸움 ②③ — 수법을 연구하고 날마다 치기 (6장)

둘째 준비물은 원수가 다니는 길, 쓰는 술수, 노리는 기회를 알아내는 일이다. 실제

이런 틈을 타서 나를 이겼다. 막지 않으면 또 이길 것이다.” 오웬은 죄의 핑계와 그럴듯한 논리를 꿰뚫어 보는 것을 영적 지혜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 부른다. 셋째 준비물은 모든 수단으로 날마다 죄를 치는 것이 싸움의 핵심임을 아는 것이다. 결심한 사람은 욕망이 조용하다고 다 죽였다 여기지 않고, 날마다 새 상처를 낸다.

1. 죄의 길·술수·기회를 연구하라
2. 죄가 잠잠할 때도 복기하라
3. 죄의 핑계와 논리를 간파하는 게 지혜다
4. 조용함을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
5. 날마다 새 타격을 가하라

> **시편 51:3**
>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늘 똑바로 보는 태도
>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골로새서 3:5 ★**
> 땅에 있는 지체(음란·부정·사욕·악한 정욕·탐심)를 죽이라. 날마다 계속되는 명령

“죄를 죽이는 것은 죄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 7. 성공 — 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것 (6장)

셋째 의미는 죄를 이기는 일에 '자주,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오웬이 말하는 성공은 죄가 밖으로 터지지 못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다. 죄와 맞붙어 이기고 끝까지 쫓아가 정복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죄가 육체를 먹일 생각을 지어내 유혹한다고 하자. 그 순간 알아차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끌고 가, 거기서 정죄하고 끝까지 처리한다. 이런 승리가 쌓이면 욕망의 뿌리가 약해져 더는 예배와 평안을 흔들지 못한다. 이때 그 사람은 남은 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 막기만 하는 건 아직 성공이 아니다
3. 즉시 알아차려 법과 사랑 앞에 세우라
4. 끝까지 처리해야 승리다
5. 열매는 고요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 **갈라디아서 5:24 ★ (배경)**
> 오웬은 이 절에서 구절을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앞의 '못 박으라'가 끝까지 처리하라는 이 절의 배경이다

> **골로새서 3:5 ★ (배경)**
> '죽이라'는 명령이 단순한 저지를 넘어 정복을 요구한다

📜 8. 묶어 보면 — 은혜를 키우고, 모든 수단으로 즉시 (6장)

오웬은 죄 죽이기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죽이려는 대상은 특정한 욕망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 전체의 부패다. 첫째, 토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심으신 은혜의 원리를 소중히 키우는 것이다. 겸손이 자라면 교만이, 인내가 자라면 혈기가, 마음의 순결이 자라면 음행이, 하늘에 마음을 두면 세상 사랑이 약해진다. 죄의 여러 욕망이 하나의 부패한 본성이듯, 이 모든 은혜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령의 한 은혜다. 둘째, 새 사람이 주어진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즉각적이고 기꺼이 죄에 맞서는 것이다. 이 둘이 갖춰지면 승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양심이 평안을 얻는다.

1. 토대: 성령이 심은 은혜를 키우기
2. 겸손은 교만을, 인내는 혈기를 누른다
3. 은혜도 죄도 뿌리는 각각 하나다
4. 방법: 모든 수단으로 즉시 맞서기
5. 결과: 언약의 약속대로 양심의 평안

> **로마서 8:13 ★ (시리즈 토대)**

> 오웬이 6장에서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다.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책 전체의 토대가 '성령이 심으신 은혜로 싸운다'는 이 요약과 맞닿는다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이를 악물고 참기. 죄의 열매만 막는다	십자가에 못 박듯 죄를 낳는 성향의 피와 원기를 뺀다
요즘 잠잠하니 끝났다고 여기기	잠잠할 때도 수법을 복기하고 날마다 새 타격을 가한다
큰 사고가 없으니 거룩하다고 여기기	조용한 죄(세상 사랑·인정욕)도 원수로 알아보고 친다
행동으로만 안 나오면 성공	알아차려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세우고 끝까지 이긴다
내 의지력으로 버티기	성령이 심으신 은혜(겸손·인내·순결)를 키워 죄를 약하게 한다

참기는 뚜껑을 누르는 일이고, 죽이기는 불을 끄는 일이다. 5편 비교판이 '아닌 것'을 보여 주었다면, 이 판은 그 자리를 채우는 '인 것'이다. 핵심은 더 세게 참는 것이 아니라, 과녁을 열매에서 뿌리로 옮기는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정욕(욕망)
특정한 죄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내 안의 강한 바람으로, 성적인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육신
몸의 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적 생각과 의지 전체.

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점점 거룩하게 자라 가는 평생의 과정.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무시며 새 생명과 죄와 싸울 힘을 주시는 일.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 주는 마음의 법정.

성향(습성)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늘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뿌리 깊은 경향.

은혜의 원리
성령이 신자 안에 심으신 겸손·인내·순결 같은 거룩한 성향의 근원.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관계와 약속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죄 죽이기는 터진 죄를 막는 일이 아니라, 죄로 끄는 뿌리 깊은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듯 약화시키는 일이다.
- 내 안의 원수를 원수로 알아보고, 그 수법을 연구하고, 잠잠할 때에도 날마다

- 성공이란 죄를 알아차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세우고 끝까지 이기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다.
- 그 힘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이 심으신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고행이 아니라 은혜를 키우는 일이다.
- 이렇게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약속대로 양심의 평안을 주신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6장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